



작품 : 신병주 가브리엘(금정성당·부산가톨릭미술협회)

대림 제1주일 2024년 12월 1일

입 당 송

하느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저의 하느님,
당신께 저를 맡기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원수
들이 저를 보고 좋아라 날뛰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께
바라는 이는 아무도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이다.

제 1 독 서 예레미야서 33,14-16

화 답 송

◎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후렴) 주님, 당신께 제 - 영 혼 들어 올 리 나 - 이 다.

1.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
은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

2.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
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
신 길 알게 하신다. ◎

3. 주님의 계약과 법규를 지키는 이들에게, 주님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라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
와 사귀시고, 당신의 계약 그들에게 알려 주신다. ◎

제 2 독 서 테살로니카 1서 3,12-4,2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복 음 루카 21,25-28.34-36

영성체송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청소년·청년의 해(2) - ‘배움과 체험의 해’

사랑하는 성직자, 수도자, 교형 자매 여러분!

우리는 2024년 ‘환대와 경청의 해’를 보내면서 청소년과 청년 사목에 대하여 많이 고민하였고, 각 본당에서도 다방면으로 젊은이를 초대하고 환대하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고하신 본당 신부님과 수녀님, 모든 교우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들 공감하시듯이 청소년과 청년 사목은 단기간에 끝낼 수도, 짧은 시간 안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도 없습니다. 젊은이와 함께 하기 위한 노력이 끊임 없이 필요하고, 그들이 ‘하느님 안에서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사목에 있어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관심’은 곧 ‘우리 교회의 미래’라는 것에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청소년·청년의 해’의 두 번째인 ‘배움과 체험의 해’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이하시고 빵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당신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그들은 곧 바로 다른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이 부분을 모티브로 2025년 ‘배움과 체험의 해’는 하느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알고, 특히 말씀과 기도와 전례 안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인생은 죽을 때까지 배우고 체험하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신앙인인 우리는 ‘배움과 체험’의 범위를 더 넓혀 하느님을 알고 만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주제인 ‘배움과 체험’은 지식의 차원을 넘어, 하느님을 통하여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임을 깨닫고, 주님을 우리 구세주요 인도자로 믿으

며 사는 지혜의 차원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그 지혜를 찾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잠언 3,13 참조)이고, 모든 것을 다 팔아 보물과 진주를 사는 현명하고 기쁨 가득한 사람(마태 13,44-46 참조)입니다. 배움과 체험을 통해 일상의 삶과 더불어 영적인 삶도 내 것으로 만들고, 세상 또한 하느님께 속해 있으며 우리의 모든 활동이 주님 은총 안에서 이루어짐을 깨닫는 한 해이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미사, 성시간, 성체조배, 말씀 나눔, 시간 전례, 찬양, 성지 방문, 피정 등은 우리 신앙의 기초이자 하느님을 체험하고 믿음을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바쁘고 어렵다하여 신앙의 기초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는 기초 위에는 아무것도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초심(初心)을 지키고, 이 신앙의 기초 위에 우리 믿음을 굳게 세워야겠습니다.

한편 3년의 계획에 맞춰, 올해는 각 지구별로 또는 타 본당과 연계하여 젊은이들이 서로 만나 삶과 신앙을 나누고, 각자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을 알고 체험하는 시간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배우고 체험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듯이 청소년과 청년 시절에 경험하는 공동 신앙 체험은 좋은 밑거름이 되어 신앙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하느님께 한발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2025년 ‘배움과 체험의 해’를 선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각 지구별로 ‘젊은이의 날’을 계획해 봅시다.

각 지구별로 올해 ‘젊은이의 날’을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과 ‘나, 너, 우리’라는 더 넓은 신앙 공동체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탈출기에 이스라엘이 아말렉족과 싸울 때, 모세가 두 팔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두 팔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힘이 들어 두 팔을 내리면 아말렉족이 이겼습니다. 이것을 본 아론과 후르는 모세를 돌에 앉히고 옆에서 두 팔을 떠받쳤고, 그 팔이 쳐지지 않아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전해집니다.(탈출 17,8-12 참조) 이 모습은 공동체와 공동 기도를 연상케 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와 힘은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그 기도와 힘은 강하고 주님께서도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각 지구별 '젊은이의 날'을 통해 청소년과 청년이 신앙 공동체와 공동체에 내려지는 하느님의 은총을 깊이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로마 8,17)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젊은이들도 하느님 은총의 공동 상속자요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함께하기를 희망합니다.

2. 타 본당, 수도회와 동반합시다.

주변에 있는 타 본당과 협력하여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공유해 봅시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한 본당의 젊은이는 작을 수 있으나 서로 모이면 큰 바다를 이룰 것입니다. 본당의 울타리와 경계를 열어 서로의 믿음을 나누고, 신앙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합시다. 본당 간 협력은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만남의 장(場)이 되어 젊은이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본당 간 협력이 주변 수도회와도 연결되어 우리의 신앙과 만남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대합니다.

3. '공동의 집 살리기'로 하느님을 배우고 체험합시다.

공동의 집인 지구 살리기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하느님 창조의 신비에 동참하는 것이며, 하느님을 배우고 체험하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하느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과 조화로

운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 하나 하나는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 여정임을 기억하고, 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갑시다. 그리고 기후와 환경 재난으로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어려운 이들을 기억하고, 취약한 사람들과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직자, 수도자, 교형 자매 여러분!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세상에 나아갑시다. 하느님을 알고 체험한 사람은 그 발걸음에 힘이 있고 믿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자매이며, 하늘나라의 공동 상속자입니다. 타 본당과의 협력과 각 지구별 모임을 통해 많은 교우들, 특히 젊은이들이 이 기쁨의 소식을 나누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교구민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중점사항>

1. 각 지구별 '젊은이의 날' 계획하기
2. 타 본당, 수도회와 동반하기
3. 기초 신앙 다지기
4. 순교자 정신 잇기
5. 부모 교육과 역할의 중요성 알기
6. 이주·다문화 가정과 장애 청소년, 청년에게 관심 가지기
7. '공동의 집 살리기'에 동참하기

손삼석

천주교 부산교구장 손삼석 요셉 주교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실천합시다.

언젠가 죽음이 임박한 환자의 보호자께서, 환자가 인생의 여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면서 병자 성사를 청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호자는 환자가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당부의 말을 곁들였습니다. 과연 죽음을 어떻게 잘 준비시킬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 환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희망은 남아 있으니, 삶에 대한 희망을 절대 내려놓지 마세요.” 그리고 손을 잡고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환우분의 어두웠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준비시키려 사제인 저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어 주라고 보낸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포와 근심과 고통에서 벗어나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은행에 적금을 들 듯이, 나중에 행복하기 위해 고통을 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 아파할 테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서 항상 기뻐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굳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아닐지 하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대한 희망을 잃고서 세상의 끝날 날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현실에서 마주치는 힘없고 소외된 이들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다면, 그때 교회에는 위기가 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아직 살만한 것이 아닐지 하고 생각합니다. 감옥 갇힌 죄인들을 위해 봉사하는 이들이 있고, 굶주린 행려자들을 위해 먹거리를 준비하는 이들이 있고, 돈이 없어 걱정하는 아픈 이들을 위해 무료로 진료해 주는 이들이 있고, 배우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재능을 봉사하는 선생님들이 교회에는 많이들 계시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올바르게 사랑해야 합니다. 죽음 뒤의 영광만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주머니에서 꺼내 쓰는 그런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에 아파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른 이의 아픔에 함께하고 위로하며, 고통과 번뇌 속에서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못해 보이는 이는 업신여기고, 가난한 이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아프지만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나누어야 할 것은 나눌 줄 아는,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희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그날에도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실천합시다.

강 병규 야고보 신부
교정사목 담당



작품
설명



주님! 한 해의 시작점에서 고난의 시기를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가장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
저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주님 어서 오소서!

작품 : 신병주 가브리엘(금정성당·부산가톨릭미술인회)



김성규 안드레아 신부 선종

우리 교구 사제인 김성규 신부가 지난 11월 23일(토) 병환으로 선종했다. 故 김성규 신부의 장례미사는 지난 11월 25일(월) 10:00 남천성당 대성전에서 교구장 손삼석 주교의 주례로 사제단과 신자들이 애도하는 가운데 봉헌되었다. 손삼석 주교는 미사 강론에서 “김 안드레아 신부님은 주님이 맡기신 일을 성실히 수행하시다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다.”며 “우리 모두 신부님을 기억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제 육체적, 심적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라고 추모의 뜻을 전했다. 고인은 양산 천주교 묘지 하늘공원에 봉안되었다.



[약력]

1963. 2. 10. 전북 출생	2003. 10. 9. 성소국장
1991. 2. 광주가톨릭대학교 졸업	2004. 10. 7. 대대성당 주임
1991. 2. 2. 사제서품	2008. 10. 10. 안식년
1991. 2. 1. 중앙성당 보좌	2009. 10. 13. 성지성당 주임
1992. 2. 1. 금정성당 보좌	2013. 10. 4. 전하성당 주임
1993. 2. 6. 전포성당 주임	2017. 9. 29. 못골성당 주임
1996. 2. 3.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임	2021. 8. 19. 반송성당 주임
2000. 2. 10. 좌동성당 주임	2024. 8. 16. 휴양

오륜대순교자성지 조성을 위한 봉헌금 현황

[11월 17일~11월 23일] 합계 : 2,272,900원, 누계 : 3,696,335,512원

최찬현 100,000 백승현 300,000 김부순 100,000 임채욱 200,000 이귀남 100,000 황지혜 50,000 김용례 10,000 유미향 50,000 최창웅 50,000
석미영 100,000 하종석 200,000 박경림 100,000 김종철 100,000 차선출 100,000 김지후 30,000 지봉화 50,000 김상하 50,000 이현진 30,000
김미화 100,000 강용자 200,000 정재원 100,000 박준호 100,000 김영애 10,000 지수미 30,000 김마국 10,000 김유빈 2,900

봉헌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농협 301-0629-8734-11, 부산 113-2014-1175-03 (예금주 : 천주교부산교구)



대림 제1주일이 안드레아 사도 축일(11.30)과 가까운 주일로 정해지는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림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실’을 기념하는 주님 성탄 대축일을 준비하고, 세상의 시간이 끝날 때 ‘두 번째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전례주년과 전례력에 관한 일반규범 39항) 대림 시기의 시작일인 대림 제1주일은, 11월 30일이 주일이면 이날로 정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날과 가장 가까운 주일로 정해집니다.(전례주년 40항) 11월 30일은 성 안드레아 사도의 축일이며 대림 제1주일은 교회의 전례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요한 복음에 따르면 안드레아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미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주님을 보고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요한 1,29.36)라고 외쳤을 때, 함께 있었던 두 명의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외침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 하룻

밤을 묵은 뒤 그분을 메시아로 확신하였고, 형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요한 1,41)고 소개하며 함께 제자가 됩니다.

이처럼 안드레아는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 몰랐으나 분명히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희망하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메시아를 만났을 때 그 기쁨을 형제와 나누었습니다. 안드레아는 “열심히 그리고 기쁘게 기다리는 때”(전례주년 39항)인 대림 시기의 모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안드레아 사도 축일과 가까운 주일에 대림 시기를 시작하는 관습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교회의 전례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성 안드레아 사도와 같이 우리도 용기있게 응답하며(마태 4,18-20) 한 해를 시작합니다. ■ 전례위원회

교 구

성소자를 위한 기도모임 피정(부산.울산)

·12.6(금) 10:00~16:00 ·푸른나무교육관
준비물 : 묵주, 미사도구, 개인컵
문의 : 629-8760(성소국)

12월 혼인강좌

·12.8(일) 15:00~18:50 ·부산가정성당
대상 : ① 결혼 준비하는 모든 예비부부
② 교회혼인 준비하는 모든 기혼부부
접수 : 100% 온라인(catholic-marry.or.kr),
회당 선착순 50커플, 당일 접수 불가
문의 : 441-3501(가정사목국)

부산가톨릭청년합창단원 모집(하반기)

대상 : 만 18세~만 35세 이하의 신자
신청방법 : 이메일(purunnamu@catb.kr)
오디션 : 자유곡 1곡, 12.21(토) 10:00 남천동
푸른나무 교육관 2층(일정조율 가능)
신청마감 : 12.18(수) / 문의 : 629-8784
신청서 다운로드 : 청소년사목국-대학청년부-
공지사항 / 정기연습 : 매주 수 19:30~21:30

기관·제 단체·위원회

군중후원회 미사

울산 : 12.6(금) 10:00 옥동성당
주례 : 김부수 신부(수도군단사령부 총의성당)
부산 : 12.19(목) 10:30 금정성당
주례 : 최혁 신부(공군항공안전단 공군중앙성당)
문의 : 751-3610, (052)274-3608

선종사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1976. 12. 2.
이철희(바오로)
신부님



오순절평화회의마을 12월 김해후원회미사

김해 : 12.2(월) 10:00 임호성당
문의 : 782-0765

지속적인성체조배회 월미사

·12.3(화) ·중앙성당 대성전
10:00 성시간, 11:00 월미사(양형영성체)
주례 : 주영돈 대표지도신부 / 문의 : 466-2290

부산가톨릭평화방송 후원회 미사

양산 : 12.9(월) 10:00 남양산성당
울산 : 12.10(화) 10:00 아음성당
부산 : 12.12(목) 10:30 우동성당
문의 : 600-8800

부산 체나콜로(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12.17(화) 매월 세번째 화요일 ·가야성당
14:00 체나콜로 기도(성체현시 및 강복, 고해성사)
15:00 미사 및 안수(티없으신 성모님께 봉헌식)
지도 : 김기영 신부 / 문의 : 010-8879-2376

대림시기에 함께 하는 찬양성시간 〈마중나선 길〉

·12.12(목) 20:00 ·서면성당 성전
문의 : 809-0642(센다)

음악교육원 〈네번째 성탄이야기〉

오르간, 그레고리오성가, 합창 음악회
·12.13(금) 19:30 ·신학교정 대성당
주관 : 최유정 오르간 클래스 / 문의 : 519-0474

음악교육원 제32회 정기연주회

·12.17(화) 19:30 / 문의 : 519-0474
·부산가톨릭대 신학교정 대성당

음악교육원 성가대지휘 전문과과정 개설

대상 : 본당 성가대 지휘에 관심있는 사람
·연간 24주간 3년과정(토 09:00~13:00)
입학시험 : 2.15(토) / 등록금 : 1년 290만원
문의 : 519-0475

성령새신 봉사회(영성의집)

-수요치유기도회와 미사
·12.4(수) 13:00~15:30
-금요 밤미사 : 12.6(금) 19:50~22:30
-501차 교구성령묵상회(일반)
·12.27(금) 18:00~29(일) 17:30
문의 : (055)382-9465

성령새신 봉사회(울산 영성의집)

- 화요 치유 낮 기도회
·12.3(화) 13:00~14:20(미사)
- 목요 밤 미사 : 12.5(목) 20:00~22:30
문의 : (052)244-7014

파티마의세례사도직 기도모임

- 12월 묵주 100단 기도회
·12.2,9,16,23(월) 09:30
- 12월 첫 금요일 미사
·12.6(금) 22:00 (미사 22:30)
- 12월 첫 토요일 신심미사
·12.7(토) 11:00 미사 / 내용 : 가정 봉헌식
봉헌하실 분은 사전에(7일전) 연락 바랍니다.
- 12월 평 금요일 철야기도회
·12.13,20,27(금) 22:00
22:30 미사 / 익일 04:00 미사
문의 : 646-3746, 010-6764-3746

정하상바오로영성관 대림 무료피정

·12.9(월), 16(월) 10:00~17:00
문의 : (055)383-3101

평신도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대상 :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성인 예비신자
문의 : 519-0490(화~금 13:30~16:30)

우리농 울산 옥동 직매장 실무자 구함

근무장소 : 울산시 남구 법대로
서류 : 교적사본,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 : PC가능(한글) / 문의 : 464-8495~6
E-mail: woori-pusan@hanmail.net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울산 녹산(서부산) 마산
FM 101.1MHz FM 93.7MHz FM 101.5MHz FM 101.7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재) 16:50
12.2(월)~12.7(토) 강병규 신부(교정사목 담당)

장벽 없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배리어프리 버전 영화 '소풍'

12.6(금) 14:00~16:00

|연출: 김정희, 최수련 |작가: 이소호, 김운미
|감독: 박순옥, 정지인 |데뷔: 김아라

(*배리어프리영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해설이 추가 작업 제작된 영화)

[다정다감다섯시]

부기야 함께
MERRY CHRISTMAS!

다정다감다섯시

월~금 17:00~18:00

진행 : 이한나 아나운서

12.2(월) <방과후퀴즈>
부기야 함께 "미리 메리크리스마스"
출연 : 부기(부산 마스코트)

(주)씨 피 여행사

2/11 과달루페 칸쿤 10일 660만원AM
2/23 루르드,파티마 순례 550만원KE
3/13 베트남 다낭 순례 5일 150만원LI
247-5858, 010-3837-6434

(덕천)길맥외과의원

하지정맥류 중점 클리닉
원장 : 박우일 요셉
331-8888, 8899
덕천역 9번출구 파리바게트 건물 6층

미 래 고 속 관 광

1월 국내성지순례 (마산교구 3곳)
1/11, 1/18(토) 신석복 마르코 묘, 박대식
빅토리노 묘, 진영성당(미사), 박물관 3곳
우중한(리차드) 010-3720-0303

스마일정경우비노의학과

전 동아대병원 비뇨기과 과장/주임교수
전립선, 성기능, 요실금, 결석, 남성수술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타워메디컬
744-8181, 010-5616-8600

삼성내과MR영상의학과의

갑상선/당뇨센터, 위/대장 내시경
전문의 14명(여의사 5명)
박인호(루가), 서수홍(라파엘)
하단역 2번출구 208-5566

라파엘여행사 성지순례

2/12 성모님발현지 12일 495만원
3/3 터키,그리스11일 초특가 385만원
3/14 시칠리아,몰타 10일 485만원
대표 : 유재구 요한 (02)778-8565

제 주 성산골든뷰호텔

제주 성산일출봉·우도 길목
섬지코지·올레1코스·성산포성당
본당 단체별 맞춤 순례·가족·개인
대표 오일석(요한) 064-784-8885

미카엘여행사 성지순례

(인천) 2/6 스페인,포르투갈 12일(확정)
(부산) 3/11 나트랑,달랏 5일
(인천) 3/21 성모님발현지 4개국 12일
정상훈 미카엘 010-8650-9690

cpbc부산가톨릭평화방송 직원 구함
모집부문 : 방송기술
서류마감 : 12.6(금) 18:00 / 문의 : 600-8800,
홈페이지(bscpbc.co.kr) 참조

부산가톨릭대 신학교정 사제관 직원 구함
접수 : 12.2(월) 10:00~12(목) 16:00
문의 : 519-0436(신학교정 운영본부)

하늘공원 사무직원 구함
마감 : 12.20(금)
문의 : (055)374-8733

교육·모집·기타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후원미사
· 12.6(금) 10:30 · 남천성당
문의 : 010-9081-1743, 582-1774

밀양가르멜 수녀원 12월 후원 미사
· 12.17(화) 10:30(매월 3번째 화요일)
· 남천성당 / 주례 : 손삼석 주교
문의 : (055)353-6597

티엠티신마리아성심 재속3회 지원자 모집
첫모임 : 12.14(토) 마리아피정센터
대상 : 봉헌의 삶을 살고자 하는 55세 이하 신자
(나이는 상향가능) / 문의 : 담당수녀 010-
2607-6324 / 사무국 010-8660-5201

청주 초정성령회관 철야기도
· 매주 금 21:00~토 03:00
강사 : 전국 유명강사
문의 : (043)213-9103, 010-5482-6744
버스 : 조치원역 신한은행 앞 19:00 출발,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맞은편 19:20 출발

교우업체 소개란(6~7면 하단) 접수

- ▶ **게재 기간** 2025년 1, 2, 3월 (3개월)
- ▶ **금 액** 1회 8만원 (기본 3회 24만원)
- ▶ **접 수** 12월 1일(일)부터 선착순 / 이메일
(jubo@catb.kr) 혹은 팩스(629-8756)
- * **매년 <3월, 6월, 9월, 12월> 1일부터 접수**
- ▶ **서 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서,
교적사본(본인) 혹은 본당신부님 추천서
- ▶ **문 의** 051-629-8751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 참조

예수마음기도 하루 무료 피정
· 12.7(토) 10:00~15:00(14:00 미사)
· 부산 가톨릭센터(462-1870)
강사 : 권민자 수녀 / 신청 : 010-4837-7509

부산 맨발 가르멜 재속회 지원자 모집
신청 : 2025년 1월까지(대상 : 55세 이하)
문의 : 010-5870-2031(일요팀), 010-9413-
9779(월요팀), 010-5160-4754(화요팀)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 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성지순례(추라도포함) : 3.1~4, 3.9~12, 4.12~15
한라산포함 : 1.17~19, 1.23~25, 2.8~10, 2.14~16
생태순례 : 3.15~17, 3.22~24, 3.28~30, 4.2~4(추)
연말연시피정(한라산/일몰/일출) : 12.30~1.2
문의 : (064)756-6009, (02)773-1463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성이시돌 목장내 성지에서 침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한라산눈꽃산행 접수중)
연말연시(한라산) : 12.29~1.1(해돋이/해돋이)
한라산포함 : 1.11~13, 1.16~18, 1.20~22, 1.24~26
2.1~3, 2.7~9, 2.15~17(제주T/S), 2.21~23
자연순례 : 12.14~16, 3.1~3, 3.8~10, 3.18~20
대상 :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문의 : (064)796-4182, (02)773-1455

멕시코 과달루페 성지순례
· 5.6(화)~13(화) / 요금 : 590만원(20명 기준)
지도 : 김두운 신부(남양산성당 주임)
문의 : 010-2828-0819 *인천 출발 가능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정
대상 :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 가톨릭 신학 전반 26과목 공부
원서접수 : 11.11(월)~25.2.14(금)
문의 :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재속전교가르멜회 회원모집
대상 : 전교가르멜수녀회의 은사에 따라 관상
과 활동으로 복음적 삶을 살고자하는 평신도
문의 : 010-8503-8585(일반인반),
010-9854-6922(직장인반)

**<1일피정> : 왜, 우리는 '예수님 오심'을
알아보지 못할까?**

· 12.21(토) 10:00~16:00 · 광안리 은혜의 집
참가비 : 5만원 / 접수 : 010-8193-2648
동반 : 이영근 수사(양주올리베따노수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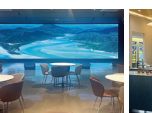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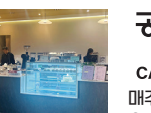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안소근 수녀와 함께하는 구약여행 열두 소에
언서 II : 12.20(금)~22(일)
성경완독 : 1.2(목)~10(금), 2.7(금)~15(토)
문의 : 010-3340-0201(횡성 성도미니코피정의집)

수도자와 함께 하는 성탄전례피정
· 12.23(월)~25(수) / 참가비 : 20만원
· 톡정포교베네딕도수녀회 베네딕도영성관
문의 : 010-7103-3425

2024 행복한 겨울캠프 접수 안내
· 1.3(금)~5(일) · 양업고등학교
대상 : 현재 중학교 1,2학년
접수 : 홈페이지 12.17(화) 10:00~ (선착순)
회비입금 : 15만원, 접수확정 문자 후 이체
문의 : (043)260-5076

예수회센터 겨울방학 특강(1월 개강)
문화유산으로 보는 교회사-중세(이진현 신부)
고대 그리스의 시간과 그리스도교 신학(김민철 신부)
모세의 삶과 신앙(주원준 박사)
구약으로 만나는 하느님의 여러 얼굴들(김민 신부)
영성과 심리의 통합 세 번째 길(최지원 수녀)
명화로 만나는 그리스도교 영성(박혜원 강사)
* 매주 동영상 링크 발송 / 1월 개강, 각 6~8주
신청 :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공간 101.1
CAFE X STAGE X GALLERY
매주 월요일 휴무
OPEN 10:00, CLOSE 19:00

창창(蒼蒼)한 미래를 가톨릭센터와 함께!
공연 및 전시 공간을 필요로 하는 10대~30대에게 오픈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대관 문의 : (051)462-1870 가톨릭센터 행정실 / www.bccenter.or.kr



가톨릭센터
www.bccenter.or.kr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카카오톡 채널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송월타월 부산진대리점 SINCE 1965 (부산진시장, 우리는행 옆) 632-5690, 010-4807-5690 양홍식(토마스) 유명애(루시아)	정대수맑은신경과 전)부산대학병원장 치매, 어지럼 대한신경과학회 회장 두통, 고혈압 부산대학교 부총장 불면증, 뇌졸중 남천역 3번출구 612-6100	우리자동차매매상사 자동차 매매 · 교환 · 위탁 · 폐차 · 정비 조남철(네레오) 010-3573-8797 현대자동차 및 신차의 모든 차량 조정연(엘리아) 010-9333-4784	보나투어 1/24 멕시코 과달루페 10일 725만원 5/25 산티아고 성지순례 12일 475만원 6/10 성모발현지 순례 12일 545만원 (02)732-4578 www.bonatour.co.kr
김병호정형외과 척추관절/통증재활/도수/물리치료 정형외과 전문의 원장 : 김병호 루카 752-0020 수영구 수영로581 광안역 4번출구(4/5층)	가톨릭트래블 산티아고 순례길 42일 루르드/파티마 성지 순례 포함 25년 3/30 (599만원+2000유로) catravel.co.kr 070-4086-0207	이삿짐은 우리트랜스 돌아가신 분 유품도 처리해드립니다 대표 변성만(요한) 권명숙(로사리아) 582-1414 010-4042-8662	독일보청기 복지카드소지자(수급자 무료, 일반90%) 세계6대브랜드 보청기 모두 취급 판매 김무나(글라라) 교우특별할인 803-5588, 1871(빨간색간판)